

홈 > 뉴스 > 뉴스 > 기타

## 국내외 법조계 만나 사법미래 논의의 장 열었다

사법정책연구원, 2018 국제 콘퍼런스 개최

[717호] 2018년 12월 10일 (월) 09:38:43

강선민 기자 ✉ news@koreanbar.or.kr



사법정책연구원(원장 강현중)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‘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’를 개최했다. UNODC(유엔마약범죄사무소)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김명수 대법원장, 김현 변협 협회장, 리밍 추아 싱가포르 대법관, 바바라 로드스타인 전 미국연방사법센터장 등 국내외 우수 법조인들이 자리했다.

주제는 ‘국제화와 우리 사법’의 미래였다. 첫날인 4일 ▲복잡 분쟁의 해결 ▲온라인 분쟁해결과 온라인 법원 ▲국제상사법원 및 해사법원에 관해, 5일 ▲사법투명성과 인공지능 ▲사법청렴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. 이후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좌장을 맡아 콘퍼런스를 총망라하는 좌담회를 진행했다.

강현중 원장은 “국제사회가 다가오는 미래 법조 사회를 함께 전망하는 시간을 보냈다”며 “앞으로도 활발한 국제 사법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 전했다.

© 대한변협신문(<http://news.koreanbar.or.kr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